

# ‘눈에 오는 중풍’ 치료시기 놓치면 실명

흔히 우리 눈은 카메라에 비유되곤 한다. 망막혈관폐쇄증은 눈 안에서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혈관이 막히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망막 내 동맥과 정맥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치료시기를 놓치면 실명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망막혈관폐쇄 환자 수는 2011년 4만 5,010명에서 2015년 5만8,322명으로 4년간 29% 증가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50대와 60대에 많았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젊은 층의 혈관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젊은 망막혈관폐쇄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망막혈관폐쇄증에 대해 보라안과 문귀형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보라안과병원 문귀형 원장이 망막혈관폐쇄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국소 레이저광응고술 혹은 스테로이드나 항VEGF를 유리체강내로 주사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형광안저촬영검사에서 유리체 출혈이나 신생혈관내장이 예상되는 경우는 망막허혈부위를 레이저로 파괴시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유리체 출혈이 생긴 경우는 유리체절제기로 수술을 해서시력회복을 시킬 수 있다. 시력의 예후는 병변의 황반부 침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황반부 부종이 심하거나 허혈이 있으면 시력이 많이 저하되거나 다행이 폐쇄부위가 좁아서 황반부를 침범하지 않았으면 비교적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 망막 혈관 막혀 시력 저하 현상 나타나 서구식 식습관·운동부족...환자 증가세 식습관 등 관리로 혈압·혈당 조절해야

### 망막혈관폐쇄증

◇망막정맥·동맥 폐쇄란 망막정맥폐쇄란 망막 내의 정맥이 고혈압, 혈관경화 등의 여러 이유에 의해 막히고 정상적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머리 속의 혈관이 막혀 언어장애, 사지의 운동장애 등을 야기하는 것을 중풍이라고 하는데 눈 속의 혈관이 막혀 눈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질환을 눈에 발생한 중풍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주로 안구 내 혈관의 이상을 가져오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발병률이 높으며 평균발병연령은 약 60대 초반이다. 시신경유두 근처의 큰 망막정맥이 폐쇄됨에 따라 안구에는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혈

액이 순환해야 하는 혈관이 막힘에 따라 혈액이 혈관벽 밖으로 퍼져나가는 망막출혈, 망막부종 등이 발생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시력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시력감소를 이유로 안과로 내원하는 경우 안저검사상 전반적인 망막출혈, 부종, 혈관확장 등을 보이면 이 질환을 의심하며 형광안저조영술, 망막단층촬영 등을 시행하게 된다. 주로 혈전이나 플라스테를 덩어리가 망막의 동맥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장판막증이 있거나 부정맥 등이 있으면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황반부 부위의 동맥이 막히면, 환자는 위 또는 아래 부분이 어둡게 느낄 수 있다. 안과적으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경우가 많

고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망막동맥폐쇄는 안과에서 응급질환이다.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치료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즉시 치료해야 한다. 발병 후 2시간 이내 안압을 낮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망막정맥폐쇄는 망막동맥폐쇄보다 시력 감소가 심하지 않지만, 합병증으로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한다.

◇치료법 치료는 내과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안과적 치료는 시력회복과 합병증의 예방이 주목적이다. 황반부의 부종에 의한 시력감소는

◇예방법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평소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즉 혈압이나 혈당을 잘 조절해 혈액내의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의 수치를 낮추도록 하고,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등으로 평소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는 아무런 증상이나 질병이 없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눈 검진을 받아 녹내장 등의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망막혈관폐쇄는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시력이 이상인 경우 즉시 검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길용현 기자

도움말 문귀형 <보라안과 원장>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들. 암생존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위한 ‘포스트 암클리닉’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 화순전남대병원, 암 치유센터 운영

### 내일부터 ‘평생건강클리닉’ 맞춤형 서비스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준)이 암 생존자들을 위한 ‘암치유센터 평생건강클리닉’(센터장 류성엽)을 오는 6일부터 운영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지정 ‘광주전남 암생존자 통합지원센터 (이하 암치유센터)’로 선정된 이후 3개월간 준비해왔다.

암생존자는 암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초기치료(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를 마친 암환자를 의미한다.

최근 암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암생존자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는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전남지역암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암 생존자수는 2016년

현재 약 12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암생존자수는 150만명 수준이다.

암 생존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정신적 증상 관리, 재활과 전이 예방, 사회 적응이나 직업복귀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암치유센터에서는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 보건인력을 구성, 암 생존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류성엽 센터장은 “암환자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우울감 등을 극복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광주·전남 암 생존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조선대치과병원과 치과RIC가 주최하는 ‘2017년 한·중 교류 학술연구회 임플란트 임상 세미나’가 지난 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개최됐다.

## 조선대치과병원, 국제 치과임플란트 연수회 성료

조선대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과 치과RIC가 주최하는 ‘2017년 한·중 교류 학술연구회 임플란트 임상 세미나’가 지난 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개최됐다.

이번 임플란트 임상 세미나에는 중국 치과의사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수관 병원장의 주도하에 임플란트 수술 및 임플란트 보철 치료와 관련된 교수들(오지수 교수, 유지원 교수, 이경제 교수)이 Live Surgery

와 강의로 수준 높은 치의학 교육 및 임상기술을 중국 치과의사들에게 전수했다.

김수관 병원장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의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며

“다음 세미나에서는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스케줄로 더 많은 연수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환자중심병원 거듭나자”

## 전남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보고 워크숍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립)이 3년 연속 우수 경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교육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을 차지한 전남대병원이 최근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경영평가 결과보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윤택립 병원장과 병원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영평가에 대한 지표별 결과 보고와 향후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총 2부로 나뉘어진 워크숍은 1부 지표별 경영관리보고, 2부 지표별 주요 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표 후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도 가졌다.

지표별 경영관리 보고에서는 기관장 리더십, 조직·인적 자원 관리, 재무 예산관

리, 보수 및 복리 후생, 노사관리 등을 주제로 다뤘다.

이어 지표별 주요 사업 보고는 교육, 연구, 공공보건의료, 진료 사업 등에 대해 보

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보고 중 약 50개 항목에 걸쳐 인터뷰 형식으로 평가된 기관장 리더십 부문에 대해서는 경영전략위원회 구성해 효율적인 중장기 경영전략체계에 대한 진단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실천 및 추진했던 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와 함께 신속한 개선을 위한 부문별 대책 제시 등으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윤택립 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은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고객만족·공공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결과 경영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www.clear-skin.co.kr

맑은피부과  
성형외과

서구 시청로 17(치평동) 상무지구 미즈피아병원 1층  
병원 062.385-7575 에스텍 062.385-0009

www.hkh.co.kr http://cafe.naver.com/hkh3000

광주한국병원  
운암한국병원

서구 월드컵4길로 223  
대표전화 062, 380, 3000  
응급실 062, 380, 3119

북구 북문대로 191  
대표전화 062, 608, 8000  
응급실 062, 608, 8119

www.kshosp.com

수원 신도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Green Hospital을 지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왕버들로 220  
대표전화 062) 975-9000 응급실 062) 975-9119

www.mr21mc.kr

광주광역시서구 학운로 1(화정동)  
☎ 062) 450-1000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